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173-213
<https://doi.org/10.29212/mh.2020..117.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대몽전쟁기 西海道·北界에서의 海島入保策 추진 양태와 군사적 성격

강재광*

1. 머리말
2. 1231년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
3. 江華遷都 이후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과
대몽전투 戰果
4. 맺음말 -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策 실행의 軍事的 特性 -

1. 머리말

고려는 對蒙戰爭기에 몽골군의 騎兵隊를 중심으로 한 위력적인 速度戰을 무마시키고 연해안 州縣民·別抄軍을 섬 안으로 옮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한편 몽골군 후방지대의 약점을 노

*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려 기습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海島入保策을 시행하였다.¹⁾ 海島入保 사례는 1231년(고종 18) 제1차 대몽전쟁 때부터 西海道·北界의 여러 고을에서 발견되거나²⁾, 해도입보책은 몽골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였던 고려가 그들의 침공에 대해 장기적으로 맞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 1232년(고종 19) 6월의 江華遷都는 비록 崔瑀政權이 전격적으로 강행한 측면이 있으나 해도입보책의 결정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후 몽골이 出陸還都(開京還都)를 최우선 강화조건으로 내세웠을 만큼 출륙문제는 麗·蒙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중대한 현안이었다.

그동안 고려시대사 사학계에서 대몽전쟁기 고려가 구사한 해도입보책에 대해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먼저 운용 맥은 고려무인정권이 입안하고 강행하였던 해도입보책의 시행 배경 및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고려가 구사한 해도입보책에 대응하기 위한 몽골 측의 해도침공 등 전략변화 모습을 정밀하게 살펴보았다.⁴⁾ 다음으로 강제광은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책에 따른 고려의 주요 戰略海島⁵⁾ 20여 개를 도출해내고 서남해안

1)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그동안 對蒙戰爭期 海島入保·海島入保策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 尹龍燾,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 역사』 30, 2012; 윤경진, 「고려 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고려 대몽전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軍史』 89, 2013;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 2011; 강제광, 「1255~1256년 槽島·牙州海島 대상지 비정과 海戰의 影響」, 『軍史』 93, 2014.
- 2)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 및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참조.
- 3) 尹龍燾,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 4) 尹龍燾,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 5) 姜在光은 對蒙戰爭期에 『高麗史』·『高麗史節要』에 등장하는 海島들 가운데 대하천

전략해도에서의 해상전투 승리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전략해도의 전술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⁶⁾ 한편, 윤경진은 대몽전쟁기 해도 입보가 界首官 중심으로 상급 고을 수령이 섬으로의 입보를 실행하였다고 보았으며⁷⁾, 기존 학설과는 다르게 대몽전쟁기 해도 입보는 1232년(고종 19)에서야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였다.⁸⁾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씨무인정권이 구사한 해도입보책의 실행 배경 및 추진 양태, 해도입보의 성과 및 해도전투 전과, 그리고 투몽사태 등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전쟁사·대몽항전사 관점에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간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하여 대몽전쟁기 해도입보 추진 사례와 戰果를 서해도·북계에 국한시켜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서해도·북계에서 실행된 해도입보책의 군사적 특성 및 역사적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해도입보책 시행 지역을 서해도·북계로 국한한 것은 이들 지역에서 1231년 대몽전쟁 개시와 더불어 해도입보 사례가 산전되고, 1232년 이후 고려의 수도로 자리매김한 江都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해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1231년 제1차 대몽전쟁 당시 서해도·북계에서 추진된 해도입보 사례를 모두 망라하여 해도입보 추진 주체, 해도입보 시기, 입보한 해도 등을 정밀하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해도입보 추진 주체가 고을 수령인지 국가인지에 대해서 試論的인 논의를 해볼 것이다. 또한, 서해도·

하구에 위치하면서도 육지와 가까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어서 州縣民·別抄軍이 입보해 있거나 몽골군과의 海上戰鬪가 벌어졌던 주요 해도를 戰略海島라고 규정한 바 있다(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 30쪽).

6) 姜在光, 앞의 논문, 『軍史』 66, 2008.

7) 윤경진,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軍史』 89, 2013.

8) 윤경진, 「고려 후기 北界 州鎮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 2010.

북계 고을의 해도입보가 몽골군의 예봉을 회피하기 위한 피난의 성격도 있지만 고려 三軍의 洞仙驛戰鬪·安北府戰鬪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켜보려 한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북계 고을들의 해도입보 추진 樣態를 모두 살펴본 후 1231년의 해도입보와 달라진 점은 어떤 측면이 있는지 제시해보고, 해도입보책을 유지한 서해도·북계 전략해도의 대몽전투에서의 戰果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몽전쟁 말엽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별초군·주현민의 謀叛 및 投蒙事態의 원인을 밝혀내보고, 투몽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江都朝廷의 제반 조치를 분석하여 고려무인정권이 끝까지 해도입보책을 강경하게 고수하려 했음을 설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대몽전쟁기 서해도·북계에서 추진된 해도입보책의 군사적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된 해도입보책의 독자적인 특징을 적시하고자 한다. 이 章에서 서해도·북계에서의 해도입보책 시행은 江都 북방의 해상로를 수호하여 고려 수도인 강도를 지켜냈다는 점, 북계 전략해도에 京別抄⁹⁾를 배치시켜 해상 방어력을 배가시켰다는 점, 대몽전쟁 말기에 北界兵馬使營이 서해도·북계의 주요 전략해도로 옮겨가면서 전략해도 중심으로 대몽항전을 이끌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려 한다.

9) 京別抄는 州縣別抄와 구별되는 江都에 있던 별초, 곧 江都別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對蒙戰爭期 고려의 중추적인 부대였던 三別抄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강재광, 『對蒙戰爭期 고려 水軍의 활동 양상과 戰爭史의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57, 2019, 53쪽의 각주 30 참조).

2. 1231년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

1231년(고종 18) 8월 몽골 제1차 침입이 개시되자 고려는 淸野入保戰術로 맞서 항전했지만, 북계 興化道·雲中道の 諸城이 함락되고 龜州城·慈州城 등에서만 고군분투하는 형세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몽골군이 西海道까지 남하해오자 대몽전쟁기 최초의 해도입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 A. 丁酉日에 몽골군이 黃州·鳳州까지 침입해오자 두 州의 수령은 백성을 이끌고 鐵島로 入保하였다.(『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¹⁰⁾

위의 사료 A에서 1231년 9월 丁酉日(14일)에 몽골군이 黃州·鳳州까지 침입하자 황주·봉주의 수령이 백성을 이끌고 鐵島로 入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황주·봉주까지 남하한 몽골군은 撒禮塔의 本陣이 아니라 전체 몽골군 중에서 별동대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¹²⁾ 황주·봉주 수령의 철도 입보를 두고서 고을 수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³⁾ 그러나

10)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 “丁酉 蒙兵至黃·鳳州 二州守率民 入保 鐵島”

11) 사료 A에서 몽골군이 黃州·鳳州 방면으로 침입한 것이 1231년(고종 18) 9월 정유일(14일)이므로 黃州·鳳州의 鐵島 入保는 9월 14일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12) 1231년(고종 18) 9월 丁酉日에 西海道 黃州·鳳州까지 남하한 몽골군은 몽골 南路軍 소속으로서 唐古·蒲桃·迪巨 元帥가 이끄는 別動隊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사료 A의 문맥으로만 따져보면 黃州·鳳州 수령의 자의적이면서도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鐵島 入保가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황주·봉주 수령이 인근 山城으로 피난하지 않고 철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개연성을 암시해 준다¹⁴⁾. 이와 연관하여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황주·봉주의 철도 입보를 당시 급박했던 제1차 대몽전쟁 전개과정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B-1. 乙酉日에 宰相들이 崔瑀의 집에 모여 三軍을 출동시켜 몽골군을 방어할 것을 의논하였으며, 大將軍 蔡松年을 北界兵馬使로 삼고 여러 道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乙酉日條)¹⁵⁾

B-2. 壬辰日에 三軍이 출정하였다.(『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壬辰日條)¹⁶⁾

B-3. 三軍이 洞仙驛에 주둔했는데, 해질 무렵에 첩자가 와서 적이 공격해 올 기미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삼군이 그 말을 믿고 말안장을 풀어놓고 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 외치기를, “오랑캐 군사가 이르렀다.”라고 하니, 軍中이 크게 놀라 모두 무너졌다. 몽골군 8,000여 인이 갑자기 이르자, 上將軍 李子晟과 장군 李承子·盧坦 등 5, 6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이자성은 날아온 화살에 맞고, 노탄은 창에 찔렸으나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삼군이 비로소 집결하여 싸우니, 몽골군이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와서 우리의 右軍을 공격하였다. 散員 李之茂·李仁式 등 4, 5인이 이를 막아내었다. 馬山の 草賊 두 명이 몽골인을 쏘았는데, 시위소리가 나는 대로 거꾸러졌다. 관

14) 강재광, 「對蒙戰爭期 고려 水軍의 활동 양상과 戰爭史的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57, 2019, 46쪽.

15)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乙酉日條, “九月 乙酉 宰相會崔瑀第 議出三軍 以禦蒙兵 以大將軍蔡松年爲北界兵馬使 又徵諸道兵”

16)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壬辰日條, “壬辰 三軍啓行”

군이 勝勢를 타 공격하여 물리쳤다.(『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9월조)¹⁷⁾

위의 사료 B-1에서 1231년 9월 乙酉日(2일)에 고려 조정의 재상들이 무인집정 崔瑀의 집에 모여 三軍을 출정케 하여 몽골군을 방어할 것을 의논하였고, 최우는 大將軍 蔡松年을 北界兵馬使로 삼아 여로 道에서 군사를 징발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몽골군이 이미 1231년 8월 하순에 咸新鎮의 항복을 받아내고 鐵州를 도륙한¹⁸⁾ 것을 상기한다면, 최우가 私第에 재상들을 모아놓고 對蒙防禦策 회의를 연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렇더라도 고려 삼군이 급히 편제되어 같은 해 9월 壬辰日(9일)에 출정하였고(B-2), 황주·봉주 수령이 철도에 입보한 이후 洞仙驛戰鬪를 치렀다(B-3).

약전고투하며 몽골군을 겨우 물리쳤던 동선역전투가 언제 치러졌는지 위의 B-3의 사료에서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절요』 고종 18년 9월의 여러 기사들의 배치 순서에 의하면, 동선역전투 기사는 龍州 함락 기사와 宣州·郭州 함락 기사 사이에 끼여 있다. 물론 『고려사절요』 고종 18년 9월의 여러 기사들은 날짜를 전혀 알 수 없고 『고려사』에서도 동선역전투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¹⁹⁾ 그렇더라도 『고려사』 고종세가에서 고종 18년 9월의 여러

17)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9월조, “三軍屯洞仙驛, 會日暮, 諜者來報無賊變, 三軍信之, 解鞍而息. 有人登山呼曰, ‘狄兵至矣.’ 軍中大驚皆潰. 蒙兵八千餘人突至, 上將軍李于晟將軍李承子盧坦等五六人殊死戰, 于晟中流矢, 坦中槍僅免. 三軍始集而與戰, 蒙兵稍却, 復來, 擊我右軍. 有散員李之茂李仁式等四五人拒之, 馬山賊二人射蒙人, 應弦而仆. 官軍乘勝, 擊走之.”

18)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8월 壬午日條, “壬午 蒙古元帥撒禮塔圍咸新鎮, 屠鐵州.”

19) 『高麗史節要』에서는 洞仙驛戰鬪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 『高麗史』에서는 이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高麗史節要』에서 동선역전투 기사 배열 순서를 통해서 『高麗史』에서 비록 동선역전투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高麗史節要』의 기사 배열 순서를 감안하여 동선역전투 발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기사들은 날짜 확인이 가능하다. 『고려사』 고종세가에 의하면, 용주가 몽골군에게 항복하였다는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1231년 9월 癸卯日(20일)이고²⁰⁾, 선주·곽주 함락은 9월 壬子日(29일)이다.²¹⁾ 그렇다면, 동선역전투는 1231년 9월 20~29일 사이에 치러졌음이 분명하다.

황주·봉주 수령이 백성을 거느리고 철도에 입보한 시점이 1231년 9월 14일 이후이고, 동선역전투가 같은 달 20~29일 사이에 발발했다면, 황주·봉주의 철도 입보와 동선역전투 전개 상관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洞仙驛이 서해도 황주에 위치해 있고²²⁾ 봉주도 황주에 인접해 있는 고을인 점이 눈에 띄며, 고려 삼군이 주둔한 동선역에서 몽골군과의 대규모 전투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황주·봉주의 철도 입보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황주 동선역에서 동선역전투가 발발했다는²³⁾ 점도 각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231년 9월 2일에 대장군 채송년이 북계병마사에 신규 임명되어 여러 도의 군사를 징발하는 임무를 맡았던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기존의 북계병마사 朴犀는 내륙로의 군사거점인 龜州城에 입보하여 몽골 北路軍에 맞서 항전하고 있었으므로²⁴⁾ 최우선은 새롭게 북계병마사 1인을 추가 임명하여 병력 징발 임무와 더불어

20)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癸卯日條, “癸卯 北界馳報, 蒙兵圍龍州, 城中請降, 副使魏昭被擄.”

21)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壬子日條, “壬子 蒙兵陷宣·郭二州.”

22) 『高麗史』 권18, 毅宗 22년 3월 壬午日條, “壬午 住蹕黃州洞仙驛, 宴于碧波亭, 又泛舟南溪, 至夜宴樂. 賜樂工及雜戲人白金三斤.”

23) 黃州·鳳州의 鐵島 入保가 1231년(고종 18) 9월 14일이고, 洞仙驛戰鬪가 같은 달 20~29일 사이에 치러졌다면, 鐵島 入保와 洞仙驛戰鬪 사이의 간극은 6~15일 정도 차이가 난다. 최소 기간으로 상정한다면 洞仙驛戰鬪는 黃州·鳳州의 鐵島 入保 이후 1주일 정도 지나서 곧바로 치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24)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傳·金慶孫傳 및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9월 조 참조.

고려 삼군의 전투수행과 연관된 부수적인 여러 업무를 맡겼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임명된 북계병마사 채송년은 급한 대로 개경의 中央軍뿐만 아니라 개경에서 가까운 楊廣道·西海道 중심으로 군사를 징발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의 직함이 북계병마사였으므로 그는 삼군을 따라 북상하여 任地인 安北都護府로²⁵⁾ 나아가려 했을 것이다.

몽골군 별동대가 1231년 9월 癸巳日(10일)에 西京城 함락에 실패했으나²⁶⁾ 곧장 서해도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급보를 고려 삼군 지휘부가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소문은 西京留守 혹은 황주·봉주 수령이 전파했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몽골군 침입을 눈앞에 둔 황주·봉주 수령은 그 당시 황주 쪽으로 북상하고 있었던 고려 삼군 지휘부에 사태의 위급성을 알리고 긴급하게 피난하는 것을 건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이에 따라 고려 삼군 내에서 최우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었던 後軍陳主大集成과 병력 징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북계병마사 채송년은 황주·봉주 두 고을의 해도입보를 허락했을 것이며, 고려 삼군 원수부는 차후 몽골군과의 一戰을 위해 황주 동선역으로 나아갔던 것이라 보아진다.

25) 北界兵馬使(西北面兵馬使)의 軍營은 청천강 河岸의 安北都護府에 소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邊太燮, 『高麗 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214쪽).

26)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癸巳日條, “癸巳 蒙兵攻西京城, 不克.” 1231년 9월 癸巳日(10일)에 西京城 함락에 실패한 몽골군은 唐古·蒲桃·迪巨가 이끄는 몽골南路軍 소속의 別動隊로 추정된다. 이들이 西京城 공함에 실패했으나 곧장 남하하여 西海道 黃州·鳳州 방면으로 내려갔고 차후 고려 三軍과 洞仙驛戰鬪를 치렀다고 여겨진다.

27) 黃州·鳳州 수령이 몽골군 별동대의 침입을 받을 처지에 몰렸더라도 국가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海島에 入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고을 수령이 몽골군의 침입에 대하여 담담 고을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없이 무단으로 섬에 도피하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黃州·鳳州 수령은 어떤 식으로든 海島入保에 대하여 국가의 승낙을 받으려 했다고 생각된다.

위의 사료 B-3에서, 삼군이 동선역에 주둔했을 때 첩자가 와서 몽골군이 공격해 올 기미가 없다고 보고한 점이 눈에 띈다. 나중에 첩자의 보고는 몽골군 기습으로 인하여 허위로 드러났지만, 삼군이 황주 인근에 몽골군이 와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²⁸⁾ 몽골군 선봉대가 1231년 9월 14일에 황주·봉주까지 남하하였고, 동선역전투가 9월 20일 이후에 발발했으므로 몽골군 선봉대는 일정 기간 황주 일대에서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고려 삼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몽골 기병 8천은 첩자의 보고를 사실대로 믿고 동선역에서 野營을 준비하던 고려 삼군을 기습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 삼군 내에서 右軍에 편제된 장교들의 분전과 草賊들의 집중 화살 사격으로 퇴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고려 삼군 지휘부와 북계병마사 채송년이 황주·봉주 수령의 철도 입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이러한 추정이 큰 무리가 아니라면, 고을 수령이 독단적으로 해도입보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시 명령체계에 따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사』 地理志에서는 1231년에 해도입보를 추진한 북계 여러 고을들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C-1. 高宗 18년에 몽골군을 피하여 紫燕島로 들어갔다가 元宗 2년에 육지로 나왔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宣州條)²⁹⁾

28) 洞仙驛에서 野營을 준비하던 고려 三軍은 黃州·鳳州 인근까지 몽골군이 출몰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몽골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는 못한 듯 여겨진다. 몽골군이 洞仙驛 근처에서 매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哨兵을 통해 몽골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몽골군이 공격해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첩자의 말을 믿게 됨으로써 몽골 기병 8천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일시 큰 위기에 빠졌던 것이라 하겠다.

29)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宣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紫燕島, 元宗二年,

- C-2. 고종 18년에 몽골군이 昌州를 함락시키자 고을 사람들이 紫燕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郭州의 바닷가에 임시로 거처하였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隨州條)³⁰⁾
- C-3. 고종 18년에 몽골군의 침구로 城邑이 폐허가 되었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昌州條)³¹⁾
- C-4.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嘉山의 西村에 임시로 거처하면서 延山府에 예속되었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雲州條)³²⁾
- C-5.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嘉州에 소속시켰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博州條)³³⁾
- C-6.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泰州·博州·撫州·渭州 등을 모두 이 군에 속하게 하여 五城兼官을 삼았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嘉州條)³⁴⁾
- C-7.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隨州에 예속하였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郭州條)³⁵⁾

出陸.”

- 30)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隨州條, “高宗十八年, 蒙兵陷昌州, 州人入于紫燕島. 元宗二年, 出陸, 寓于郭州海濱”
- 31)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昌州條, “高宗十八年, 被蒙兵, 城邑丘墟.”
- 32)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雲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寓于嘉山西村, 隸延山府.”
- 33)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博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屬于嘉州.”
- 34)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嘉州條,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以泰·博·撫·渭等州, 皆屬本郡, 爲五城兼官.”
- 35)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郭州條,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隸隨州.”

- C-8.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고종) 44년에 殷州에 병합시켰다.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安州의 속현이 되었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孟州條)³⁶⁾
- C-9.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渭州의 옛 성에 거처하면서 嘉州에 소속시켰다.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撫州條)³⁷⁾
- C-10.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嘉州에 소속시켰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秦州條)³⁸⁾
- C-11.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뒤에 육지로 나와 成州의 속현이 되었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殷州條)³⁹⁾

위의 사료 C群에서, 1231년(고종 18)에 북계의 宣州·昌州·雲州·博州·嘉州·郭州·孟州·撫州·秦州·殷州 등 10개 州가 海島에 입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10개 주 중에서 興化道에 속한 것은 선주·곽주·가주·박주 등 4개 주이고, 雲中道에 속한 것은 창주·운주·맹주·무주·태주·은주 등 6개 주이다. 흥화도·운중도에 속한 10개 주 중에서 몽골군에게 함락된 것이 사료에서 확인되거나 함락되었을 것이 확실시되는 고을은 선주·곽주·가주·태주·운주·창주·박주 등 7개 주이다.⁴⁰⁾ 몽골군에

36)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孟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海島. 四十四年, 併于殷州. 元宗二年, 出陸爲安州屬縣.”

37)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撫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處渭州古城, 屬嘉州.”

38)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秦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屬于嘉州.”

39)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殷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後出陸, 爲成州屬縣.”

40) 宣州·郭州는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壬子日條에서, 雲州·秦州·嘉州는 『元史』 권120, 列傳7, 吾也而傳 및 『元史』 권149, 列傳36, 移刺捏兒傳 附 移刺買奴

게 함락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고을은 맹주·무주·은주 등 3개 주이다.⁴¹⁾ 대체적으로 이들 북계 諸州는 청천강 하구에 위치해 있거나 청천강 연안에 인접해 있는 고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위의 사료 C-1·2에서, 선주·창주는 紫燕島에 입보하였다. 선주는 『고려사』 고종세가에서 1231년 9월 29일에 함락된⁴²⁾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창주는 『고려사』 지리지에서 몽골 침입을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되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선주·창주가 입보한 자연도는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에 속해 있는 영종도이다. 북계의 선주·창주가 북계 소속의 섬이 아니라 남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도에 입보한 것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해도입보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내포한다.⁴³⁾

사료 C群에서 선주·창주의 海島入保處로 자연도만 나타날 뿐 나머지는 운주·박주·가주·곽주·맹주·무주·태주·은주의 해도 입보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고려사』 고종세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박주의 해도입보처는 葦島⁴⁴⁾임이 확인되고,⁴⁵⁾ 맹주의 해도입보처는 神威島⁴⁶⁾임이 발견

傳에서 몽골군이 함락한 사실이 발견된다. 博州는 사료 상에서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博州가 嘉州와 泰州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1) 孟州·撫州·殷州는 『高麗史』나 『元史』 등을 통해서, 1231년 제1차 對蒙戰爭 당시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孟州·撫州·殷州는 몽골 北路軍으로부터 靜州·朔州·雲州·泰州·昌州 등이 함락당한 후 그들로부터 침입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北界의 어느 海島에 입보한 것이 아닌가 한다.

42) 『高麗史』 卷23 高宗 18년 9월 壬子日條, “壬子 蒙兵陷宣·郭二州.”

43)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48~49쪽.

44) 葦島는 大寧江과 淸川江의 하류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섬이다.

45) 『高麗史』 권24, 高宗 45년 5월 壬戌日條, “博州人避兵, 入保葦島. 國家遣都領郎將崔父等, 率別抄鎮撫之. 州人反殺父及指諭尹謙·監倉李承璉. 父所領兵皆逃匿蘆葦間, 跡而盡殺之, 遂投蒙古.”

46) 神威島는 그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청천강 하구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추정된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9, 49쪽 각주20 참조).

된다.⁴⁷⁾ 사료 C-5·8에서 박주·맹주가 1231년에 바다 섬으로 피난했다고 분명히 기술했으므로, 박주·맹주는 1231년부터 각기 위도, 신위도에 입보한 섬이 된다.

선주·창주·박주·맹주의 해도입보 사례를 제외하면,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의 해도입보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고려사』 列傳 金方慶傳에 의하면, 김방경이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을 때 몽골군이 공격해오자 북계 여러 城에서는 葦島에 입보하였다는⁴⁸⁾ 사실이 주목된다. 위도에 박주뿐만 아니라 북계의 다른 여러 주들도 입보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 중에서 일부가 1231년에 위도에 함께 입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⁴⁹⁾ 한편,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가 청천강 하구에 위치한 葛島⁵⁰⁾·艾島⁵¹⁾와 대동강 하구에 있는 椴島에 입보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47) 『高麗史』 권24, 高宗 44년 7월조, “蒙兵陷神威島, 孟州守胡壽被害.”

48)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傳, “後爲西北面兵馬判官, 蒙古兵來攻, 諸城入保葦島, 島有十餘里, 平衍可耕, 患海潮不得墾. 方慶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熟, 人賴以活. 島又無井泉, 常陸汲, 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絕.”

49) 雲州·嘉州·郭州·撫州·泰州·殷州 중 일부 州가 1231년 제1차 對蒙戰爭 당시 葦島에 入保하였다는 사료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高麗史』 列傳 金方慶傳에서 北界 여러 城이 몽골 침입 때 葦島에 入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博州 인근에 있던 北界 고을들이 葦島에 入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50) 葛島는 『大東地志』 권24, 平安道 宣川 島條에 葛島가 등장한다. 갈도는 고려시대 당시 宣州 소속이었다. 이 섬은 지금의 북한 평안북도 宣川郡 葛里島로 여겨진다.

51) 『大東地志』 권24, 平安道 龍川 島條 및 『輿地圖書』 冊30, 平安道 定州牧 定州地圖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北界 방면에 艾島가 2개나 존재했음을 포착할 수 있다. 龍州 관할의 艾島와 嘉州·定州 경계에 위치한 청천강 하구의 艾島이다. 필자는 대몽전투가 발생하였던 艾島가 龍州 관할의 艾島일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姜在光, 앞의 논문, 『軍史』 66, 2008, 39쪽). 그러나 애도는 龜州 관할이라고 되어 있는 사료 내용(『高麗史』 권25, 元宗 4년 7월 乙巳日條, “秋七月 乙巳 日本商船三十人漂風, 到龜州艾島, 命賜糧護送”)을 통해서 볼 때, 대몽전투가 발발한 애도는 龍州 관할이라기보다는 嘉州·定州 경계에 있었던 龜州 관할의 艾島였다고 생각된다.

갈도·애도·가도는 『고려사』 고종세가에 등장하는 북계의 대표적인 전략해도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료 C群에서는 전주 등 10개 州가 1231년에 각기 입보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나 해도입보의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주·곽주가 『고려사』 고종세가에서 1231년 9월 29일에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곽주의 해도입보는 같은 해 10월에서야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운주 등 나머지 주들도 몽골군의 進攻에 따라 1231년 10월 중에 정해진 해도에 입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231년 10월 하순에 여·몽 사이에서 안북부전투가 치러졌고 이 大會戰에서 몽골 南路軍이 승리하여 고려 삼군은 과반을 殺傷당했고 安北府城 안으로 들어가 수세에 몰렸던⁵²⁾ 것을 주목해야 한다. 안북부전투 이후 몽골 주력군이 안북부성을 포위했을 뿐만 아니라 청천강 하류 일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전투 이후에 전주 등 10주가 청천강을 통해 서해로 빠져나가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 등 10주는 안북부전투 이전에 모두 해도입보를 완료했던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안북부전투가 1231년 10월 하순에 발발했으므로 전주 등 10주는 같은 해 10월 하순 이전에 해도입보를 실행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부터는 전주 등 10주의 해도입보 추진 명령체계에 대하여 궁구해 보도록 하자. 전주 등 10주의 수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국가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州鎭軍과 백성을 거느리고 해도에 임의대로 입보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주·창주는 강화도 남쪽의 자연도(지금의 영종도)로 입보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몽골군의 침입으로 큰 피

52) 『高麗史』 권23, 高宗 18년 10월 癸酉日條 참조.

해를 입은 전주·창주를 우선적으로 자연도에 입보케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⁵³⁾ 전주·창주는 비록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으나 고을 수령과 백성이 자연도에 입보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위도에 입보한 박주, 신위도에 입보한 맹주의 경우도 고을 수령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국가의 명령체계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해도입보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면 1231년 10월 북계 해도입보 추진 명령체계와 관련하여 전주 등 10주를 해도에 입보시킨 주체는 누구였을까? 전주 등 10주의 해도입보를 현장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북계병마사 채송년과 서북면병마사 박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북부전투 이전에 북계병마사 채송년과 서북면병마사 박서는 최우정권의 명령을 받고 몽골군에게 함락당했거나 몽골군 침입 위기에 몰린 청천강 인근 10주의 해도입보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선역전투 이후 안북부전투 직전까지 1개월 동안에는 안북부에 주둔한 고려 삼군과 북계병마사에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이때 전주 등 10주의 해도입보 계획이 입안되고 실행되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황주·봉주 수령이 철도에 황급하게 입보했을 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최우정권이 입보명령을 직접 내리지 못했으나 전주 등 10주가 해도에 입보했을 때에는 최우정권이 안북부의 고려 삼군 지휘부에 위기에 처한 북계 고을의 해도입보 명령을 직접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전주 등 10주의 해도입보는 북계병마사 채송년이 서북면병마사 박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했을 것으로 본다. 서북면병마사 박서가 해도입보에 협조했다는

53) 강제광, 앞의 논문, 2019, 48~49쪽.

것은 龜州城 안에 泰州 副使와 泰州別抄가 입보하여 몽골 북로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사료 C-10에서 태주가 1231년 북계의 어느 해도로 입보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가 있다. 서북면병마사 박서는 구주성과 가까우며 청천강에 인접한 고을들의 해도입보를 추진하면서 북계병마사 채송년을 도왔을 것이고, 북계병마사 채송년은 안북부에 머무르면서 청천강을 통한 홍화도·운중도 고을들의 해도입보를 총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에 의해 1231년 10월 하순 이전에 북계 홍화도·운중도 고을들에 대한 해도입보가 전격적으로 추진되자, 咸新鎮에서도 함신진 副使가 국가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D. 咸新鎮에서 보고하기를, “국가에서 만일 배(舟楫)를 보내준다면 내가 마땅히 성을 지키는 몽골사람 小尾生 등을 모두 죽이고, 다음에 온 성에 있는 것을 거두어서 배를 타고 개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金永時 등 30명에게 배를 갖추어 보냈더니 과연 몽골사람을 거의 다 죽였는데, 小尾生은 먼저 알고 달아났으므로 副使 全僞이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薪島에 入保하였다. 뒤에 全僞이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개경으로 돌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겨울 10월조)⁵⁴⁾

위의 사료 D를 살펴보면, 함신진 부사 全僞이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薪島⁵⁵⁾에 입보하였다가 후에 개경으로 배를 타고 오면

54)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겨울 10월조, “咸新鎮報曰, “國家若遣舟楫, 我當盡殺留城蒙人小尾生等, 然後卷城乘舟如京.” 乃命金永時等三十人, 具舟楫以送, 果殺蒙人幾盡. 小尾生先覺亡去. 副使全僞率吏民入保薪島. 後僞挈家乘舟還京, 溺死.”

55) 『大東地志』 권24, 平安道 龍川 島條에 薪島가 기록되어 있고, 『輿地圖書』 冊23, 平安道 龍川府 龍川地圖에 薪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薪島는 龍州 소속의 海島

서 溺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간이 신도에 입보하기 전에 개경 조정에 서신을 보내, 만일 국가에서 배(舟楫)를 보내준다면 함신진을 지키는 몽골인 小尾生 등을 모두 죽이고 배를 타고 개경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실제로 전간은 小尾生을 제외하고 함신진을 수비하던 몽골인들을 거의 다 제거하였으며 신도에 입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몽골군 점령지였던 함신진에서 전간이 개경 조정에 서신을 보내 해도입보를 시도한 내막은 무엇일까. 함신진 부사 전간은 1231년 10월 당시 몽골 북로군이 구주성전투에 2개월 정도 발목이 붙잡혀 있고 몽골 남로군 본진이 안북부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안북부 쪽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몽골군 점령 후방지역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개경 조정과 연락했던 것이라 여겨진다.⁵⁶⁾ 이와 더불어 생각이 미치는 것은, 전간이 국가의 주도로 청천강 연안에 인접한 북계 고을들의 해도입보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전간이 북계 여러 고을들의 해도입보 추진 소문을 들었다면 그 자신도 몽골세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해도에 입보하는 것을 고려했을 법하다. 함신진 부사 전간에게 청천강 연안 고을들의 해도입보 실행 소식을 전한 주체는 안북부에 있던 북계병마사 채송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료 C群과 사료 D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고려사절요』 고종 18년 10월조 기사들의 배치 순서를 놓고 볼 때, 함신진의 신도 입보가 북계 諸州의 해도입보 추정 시기보다 약간 늦은 1231년 10월 말에 실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⁵⁷⁾ 국가에 의해서 청천강 연안의 북계 10주에 대한 해도입보

임을 알 수 있다. 薪島는 현재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에 소속되어 있다.

56) 강제광, 앞의 논문, 2019, 47쪽.

57) 『高麗史節要』 高宗 18년 10월조의 기사 배치 순서를 보면, 咸新嶺의 薪島 入保

가 추진되고 있던 시기에 함신진 부사 전간이 북계 諸州의 해도 입보 소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개경 조정과 연락하여 해도입보를 실행했던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요컨대 1231년 9월에 서해도 황주·봉주의 철도 입보는 몽골군 별동대가 황주·봉주 방면으로 급속히 남하하고 있었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고려 삼군 지휘부와 북계병마사 채송년의 해도 입보 승낙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1231년 10월 하순 이전에 추진되었던 북계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는 최우정권의 명령에 의해 북계병마사 채송년과 서북면병마사 박서의 상호협조 하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선주 등 10주는 청천강 연안에 인접한 고을들로서 청천강 수로를 활용하여 서해 바다로 빠져나갔으며, 선주·창주는 강화도 남쪽의 자연도(영종도)에 피난하였고, 박주 등 여러 고을은 위도 등 청천강 하구의 여러 전략해도에 입보할 수 있었다. 한편, 함신진의 신도 입보는 함신진 부사 전간이 개경 조정에 배(舟楫)를 요청하여 최우정권이 수락함으로써 가능했는데, 청천강 연안의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와는 성격이 다르며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 추정 시기(1231년 10월 21일 이전)보다 약간 늦은 1231년 10월 말에 실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사는 제2차 龜州城戰鬪, 東眞軍의 和州 침략 기사 뒤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高麗史』에서 東眞軍의 和州 침략 기사는 1231년 10월 辛巳日(29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咸新鎭의 薪島 入保는 1231년 10월 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咸新鎭 副使 전간이 1231년 10월 말에 薪島에 入保했다면, 필자가 추정한 청천강 연안에 인접한 고을들의 해도입보 시기(1231년 10월 하순 이전)보다 약간 늦은 셈이 된다.

3. 江華遷都 이후 西海島·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과 대몽전투 戰果

1232년 6월 무인집정 최우가 강행하였던 강화천도는 개경의 대다수 문·무신의 반대에 직면했으나 해도입보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몽방어책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화천도 이후 연해안 주현의 해도입보는 국가의 결단으로 시행되었으며, 몽골군이 침입해오면 해도입보 명령은 江都 조정(최씨무인 정권) → 兩界兵馬使·五道按察使·三道巡問使 → 지방 수령(혹은 防護別監) → 주현민 순으로 하달되었다.⁵⁸⁾ 이러한 해도입보 명령 체계는 대몽전쟁기 내내 무인정권의 항몽정책 속에서 지속되었다.

고려가 몽골의 강력한 騎兵隊에 대항하여 지연전을 펼치고 적군으로부터 연해안 주현민과 별초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 해도입보책은 1231년 9~10월에 서해도·북계에서부터 먼저 시행되었음은 앞 章에서 살펴보았다. 1232년 강화천도 이후 해도입보책이 한층 강화되어 나갔으며, 강도 북방에 위치한 서해도·북계 전략해도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었다.⁵⁹⁾ 그러면 먼저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 방면의 해도입보 사례와 몽골 수군과의 전투에서의 전과, 서해도 전략해도의 전력 증강 등을 살펴 보면서 서해도에서 나타난 해도입보의 특성을 추적해보기로 하자.

58) 尹龍燾, 앞의 논문, 1982, 62쪽.

59) 서해도·북계 전략해도는 江都로 나아가는 북방 해로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군 본진이 양광도 이남 지역으로 진격했을 때 후방지대에 남겨져 있던 몽골의 보급부대를 역습하는 전초기지로써도 중요하였다.

- E-1. 丙午日에 席島의 防護別監이 몽골 병사 3인을 사로잡아서 檻車에 넣어 개경으로 호송하였다.(『高麗史』 권24, 高宗 23년 8월 丙午日條)⁶⁰⁾
- E-2. 고종 43년에 몽골 병사를 피해 昌麟島에 들어갔다가 뒤에 육지로 나왔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條)⁶¹⁾
- E-3. 己巳日에 西海道按察使가 보고하기를, “몽골 兵船 6척이 昌麟島를 침공하였으나 甕津縣令 李壽松이 別抄를 이끌고 격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수송을 7품으로 승진시켰다.(『高麗史』 권24, 高宗 44년 9월 己巳日條)⁶²⁾
- E-4. 林衍은 왕이 몽골 병사를 청하여 환도할 것을 우려하여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자 指諭 智甫大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黃州에 주둔하게 하고, 또한 神義軍에게 椒島에 주둔하여 방비하게 하였다.(『高麗史節要』 권18, 元宗 11년 1월조)⁶³⁾
- E-5. 北界營이 있는 席島에서 지었다.(『東文選』 권14, 七言律詩, 贈 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

위의 사료 E群은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 방면에서 이루어진 해도입보 사례를 모두 모아본 것이다. 먼저 사료 E-1을 보면, 1236년(고종 23) 8월 丙午日(21일)에 席島를 방어하던 방호별감⁶⁴⁾이 몽골 병사 3인을 사로잡아 檻車에 넣어 개경으로 호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도는 『高麗史』 지리지에

60) 『高麗史』 권24, 高宗 23년 8월 丙午日條, “丙午 席島防護別監擒蒙兵三人, 檻送于京.”

61)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條, “高宗四十三年, 避蒙兵, 入昌麟島. 後出陸.”

62) 『高麗史』 권24, 高宗 44년 9월 己巳日條,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六船侵昌麟島, 瓮津縣令李壽松率別抄, 擊却之, 加壽松七品.”

63) 『高麗史節要』 권18, 元宗 11년 1월조, “衍慮王請兵復都, 欲拒命, 遣指諭智甫大, 率兵屯黃州, 又令神義軍, 屯椒島, 以備之.”

64) 席島를 방어하던 防護別監은 海島防護別監인 것으로 이해된다.

의하면 서해도 豊州 관할이었으며⁶⁵⁾, 현재는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 석도리에 속해 있다. 석도가 풍주 관할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석도에는 豊州民이 입보하였다고 생각되며, 풍주에 인접해 있는 은율현 등 연해안 주현들도 입보했을 개연성이 있다.⁶⁶⁾

사료 E-1에서 석도에 방호별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석도가 서해도의 대표적인 전략해도로써 중요했음을 말해준다.⁶⁷⁾ 석도방호별감이 몽골 병사 3인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몽골 침입군 元帥 唐古가 지휘하던 몽골군 전체 부대 중에서 어느 한 부대가 석도를 침공하다가 실패했다는 의미이며, 여·몽 사이에서 일정한 규모의 海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⁶⁸⁾ 석도방호별감은 몽골 수군과의 해전에서 승리하여 몽골 병사 3인을 붙잡았음에 틀림없다.

사료 E-2는 안북도호부가 1256년(고종 43)에 서해도의 昌麟島에 입보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사이다. 창린도는 서해도 甕津縣 관할이었다.⁶⁹⁾ 본래 안북도호부에 北界兵馬使營이 있었으므로 1256년에 안북도호부와 더불어 북계병마사영은 창린도에 입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56년 안북도호부와 북계병마사영이 창린도에 입보한 것은 그 당시 몽골군 원수 車羅大의 대대적인 해도침공과 연관이 있다.⁷⁰⁾ 차라대의 해도침공에 맞서 江都를

65)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西海道 豊州條, “有椒島席島.”

66)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西海道 豊州條에 의하면, 豊州의 屬郡이 1개, 屬縣이 5개로 나타나 있다. 속군은 安岳郡이고, 속현은 儒州·殷栗縣·青松縣·嘉禾縣·永寧縣이다. 풍주에 속해 있는 속군·속현은 서해에 바로 인접하여 있거나 서해에서 가깝다. 따라서 안악군·유주·은율현·청송현·가화현·영녕현 등이 席島에 입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67)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1쪽.

68) 席島防護別監이 몽골 병사 3인 정도만 붙잡았다는 것은 麗·蒙 사이에서 발생한 海戰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개연성은 높여준다.

69)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西海道 甕津縣條, “有 麒麟島·昌麟島·魚化島·孤島·謀島.”

70) 몽골 제5차 침입군 元帥였던 車羅大는 1256년(고종 43) 1월에 고려의 주요한

지키는 한편 서해도 방면 전략해도의 방어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안북도호부와 북계병마사영을 서해도 창린도에 입보시켰다고 보아서 무리가 없다.

북계병마사영의 창린도 입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사료 E-3이다. 사료 E-3을 면밀히 살펴보면, 甕津縣승 李壽松이 別抄를 거느리고 창린도를 침공한 몽골 병선 6척을 격퇴한 장면이 포착된다. 웅진현령 이수송이 몽골 병선 6척을 물리친 것으로 보아 몽골 수군과 적지 않은 규모의 해전을 펼쳤음이 분명하며, 이수송 휘하의 별초가 몽골 수군을 거의 괴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수송이 거느렸던 별초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료 E-3의 별초를 중앙의 별초군,⁷¹⁾ 삼별초,⁷²⁾ 웅진현 별초⁷³⁾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웅진현령 이수송이 거느린 별초가 창린도 인근 해역에 대한 지리에 밝았을 것이며 웅진현령이 별초를 직접 거느리고 전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료 E-3의 별초는 웅진현 별초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료 E-4를 보면 元宗이 몽골 황제에게 請兵하여 還都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인집정 林衍이 指諭 智甫大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황주에 주둔케 하고 神義軍을 椒島에 주둔시켜 몽골군을 방비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별초의 한 부대인 신의군이 초도에 주둔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초도는 서해도 풍주 관할이었으며, 섬 안에 농경지와 목마장이 있어서 입보처로서 적합하였다.⁷⁴⁾ 아울러 이 섬은 북계 전략해도

섬들을 공격해서 모두 점령하겠다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이는 그가 고려의 戰略海島들에 대한 대규모 海島侵攻을 전개하겠다는 작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71) 姜在光, 앞의 논문, 『軍史』 66, 2008, 44쪽.

72) 강제광, 「대몽전쟁과 삼별초」, 『한국해양사』 III, 한국해양재단, 2013, 570쪽.

73) 강제광, 앞의 논문, 2019, 66쪽.

7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黃海道 豊川都護府 山川條, “椒島 府北四十里 海中

와 서해도 전략해도를 서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또한 초도는 고려시대 北線航路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고려의 使臣團이나 商船이 이 섬을 거쳐야만 중국 登州로 향할 수 있었다.⁷⁵⁾ 현재 이 섬에 북한 해군 제9전대가 주둔하고 있을 만큼 이 섬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상당하다.

사료 E-4에서 등장하는 초도에 어느 주현이 입보했는지 알 수 없으나 초도가 서해도 풍주 관할이었으므로 豊州民이 초도에 입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초도는 규모가 비교적 큰 섬이었고⁷⁶⁾ 섬 안에 농경지·목마장이 있었으므로 풍주 이외에 서해도의 연해안에 위치한 여러 주현이 입보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 E群에서 『고려사』·『고려사절요』의 수록 기사가 아닌 것은 E-5이다. 사료 E-5는 『東文選』에 수록된 김지대의 詩文 제목 ‘贈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인데, 김지대가 석도에 있는 북계병마사영(북계영)에서 시문을 지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김지대가 1258년(고종 45) 5월에 北界知兵馬事に 임명되었다.⁷⁷⁾ 그러므로 김지대가 ‘贈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이라는 시문을 지은 시점은 1258년 5월 이후가 된다. 그리고 1256년에 서해도 창린도에 있었던 북계병마사영이 1258년경에 석도로 옮겨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북계병마사영이 창린도에서 석도로 이동한 이유는 1258년 당시 최씨무인정권의 붕괴 및 대몽전쟁 말기의 군사적 한계 상황에 봉착하여 전략해

有牧場.”

75)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55쪽.

76) 椒島는 현재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에 속해 있으며 황해도 3대 島嶼 중의 하나이다. 이 섬은 육지에서 12km 떨어져 있고, 면적은 32.56km²이며, 섬의 둘레는 47km에 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개정증보판 (<http://encykorea.aks.ac.kr>) 참조.

77)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5년 5월조, “北界知兵馬事洪熙免, 以判秘書省事金之岱代之. 熙耽嗜女色, 不恤國事, 一方離心.”

도에 입보한 주현민의 離叛이 촉발되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 주현민이 입보한 섬은 석도·창린도·초도의 사례가 발견되며, 고려는 석도·창린도 해역에서 벌어진 여·몽 간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석도·창린도 등 전략해도는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강도를 북방에서 지키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섬이다. 그러면 이제는 강화천도 이후 북계 諸州의 전략해도 입보 상황과 대몽전투 전과, 입보민의 離叛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해보기로 하자. 우선 북계의 여러 전략해도들 중에서도 특히 葦島의 사례가 관련 사료에서 산견되어 눈길을 끈다.

F-1. 이후 金方慶이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을 때 몽골군이 공격해 오자 여러 성에서는 葦島에 入保하였다.(『高麗史』 권104, 列傳 17, 金方慶傳)⁷⁸⁾

F-2. 北界兵馬使 盧演에게 명하여 북계 여러 성의 백성을 남김없이 옮겨 해도에 입보하게 하였다. 葦島라는 섬이 있었는데 10여 리나 평탄하여 농사를 지을 만하지만 潮水 때문에 개간할 수 없었다. 兵馬判官 김방경이 제방을 쌓고 씨를 뿌리게 하였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괴로워하였으나 가을에 큰 풍년이 들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덕에 살았다. 섬에 또한 우물이 없었는데 물을 길러가는 사람이 종종 포로가 되므로, 김방경이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드니, 그러한 근심이 드디어 사라졌다. 사람들이 그 지혜에 탄복하였다.(『高麗史節要』 권16, 高宗 35년 3월조)⁷⁹⁾

78)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傳, “後爲西北面兵馬判官, 蒙古兵來攻, 諸城入保葦島.”

79)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35년 3월조, “命北界兵馬使盧演 盡徙北界諸城民 入保

F-3. 博州 사람들이 병란을 피해 葦島에 입보하였다. 나라에서 都領郎將 崔乂 등을 파견하여 別抄를 이끌고 그들을 鎮撫하게 하였는데, 박주 사람들이 도리어 崔예와 指諭 尹謙, 監倉 李承璉을 죽였다. 崔예가 거느리던 군사들은 모두 도망쳐서 갈 대밭에 숨었지만 박주 사람들이 그 뒤를 밟아 모두 죽이고는 마침내 몽골에 투항하였다.(『高麗史』 권24, 高宗 45년 5월 壬戌日條)⁸⁰⁾

F-4. 庚午日에 安北別將 康之俊이 葦島로부터 와서 항복하였으므로 銀 9근과 쌀 20곡을 하사하고 이어 攝郎將을 제수하였다.(『高麗史』 권24, 高宗 45년 5월 庚午日條)⁸¹⁾

위의 사료 F-1·2는 김방경이 1248년(고종 35)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을 때 북계 여러 성에서 위도에 입보하였음을 알려준다. 앞 章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도에는 1231년 제1차 대몽전쟁 때부터 박주가 입보해 있었다. 사료 F-1은 박주 이외에도 북계 여러 州(원문에서는 城)에서 위도에 입보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 시점은 사료 F-2를 살펴보면 1248년(고종 35년)이었다. 몽골 제4차 침입 때 북계 여러 주에서 청천강 하구에 위치한 위도에 입보했던 것이다.

사료 F-2에서 위도의 자연지리 환경이 나타나는데, 위도는 10여 리나 평탄하여 농사를 지을 만한 섬이었으나 潮水 때문에

海島. 有葦島 平衍十餘里可耕 患海潮不得墾. 兵馬判官金方慶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稔 人賴以活. 島又無井 汲者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絕. 人服其智.”

80) 『高麗史』 권24, 高宗 45년 5월 壬戌日條, “博州人避兵, 入保葦島. 國家遣都領郎將 崔乂等, 率別抄鎮撫之. 州人反殺乂及指諭 尹謙·監倉 李承璉. 乂所領兵皆逃匿蘆葦間, 跡而盡殺之, 遂投蒙古.”

81) 『高麗史』 권24, 高宗 45년 5월 庚午日條, “庚午 安北別將康之俊自葦島來降, 賜銀九斤, 米二十斛, 仍除攝郎將.”

개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북면병마판관 김방경이 입보민으로 하여금 위도 해안에 제방을 쌓고 씨를 뿌리게 하여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함으로써 위도 입보민의 생계문제를 해결하였다. 아울러 김방경이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듦으로써 식수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김방경의 지혜와 해안 덕분에 위도에서 식량·식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위도는 청천강 하구의 대표적인 전략해도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었다. 위도에서 여·몽 사이에 벌어진 해도전투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대몽전쟁기에 몽골군이 위도를 침공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김방경의 철저한 방비로 전략해도 위도의 방어력이 탄탄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사료 F-3에서는 1258년(고종 45) 5월 壬戌日(13일) 위도에 입보한 박주 사람들이 都領郎將 崔乂, 指諭 尹謙, 監倉 李承璫과 별초군을 모두 죽이고 몽골에 투항한 사실이 발견된다. 박주 사람들이 몽골에 투항한 시점은 1258년 3월 戊午政變 직후이다. 그러므로 金俊·柳璥 등 反崔埴連帶勢力에 의한 무오정변으로 인하여 최씨무인정권의 붕괴 및 정치권력 공백이 박주 사람들로 하여금 무인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진다.⁸²⁾ 아울러 북계병마사 洪熙의 苛斂誅求와 주색잡기가 북계 백성들의 반감을 샀기 때문에⁸³⁾ 위도에 입

82) 崔氏武人政權의 家兵 지휘관 金俊, 崔氏家의 심복 문신 柳璥 등이 反崔埴連帶勢力을 결집하여 1258년(고종 45) 3월에 崔埴政權의 대몽정책, 대민시책에 강한 반감을 품고 崔埴를 제거한 사건이 戊午政變이다. 무오정변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 상당수 논문이 제출되어 이 정변의 정치적 성격을 조명하였거니와 이 글에서는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무오정변으로 인해 崔氏武人政權이 붕괴되었고, 江都에서는 정치권력의 공백이 일정기간 지속되었으므로 북계 戰略海島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葦島에 입보한 博州民이 자신들을 압제하던 별초군을 모두 죽이고 몽골에 투항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83)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5년 5월조, “北界知兵馬事洪熙免 以判秘書省事金之岱代之. 熙耽嗜女色 不恤國事 一方離心.” 北界知兵馬事 洪熙가 여색을 즐기고 나라 일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한 지역[一方]이 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한 지역은 北界를 가리키는데, 결국 홍희는 면직되었고 判秘書省事 金之岱가 그를 대신

보한 박주 사람들이 이반하였다고 해석된다. 또한 고종 말엽 해마다 연이은 기근과 식량난도 박주 사람들의 투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위의 사료 F-3에서 위도에 입보한 박주 사람들이 몽골에 투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도가 몽골군에게 함락되어 그들의 점령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도에는 북계 여러 주의 백성들이 입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몽골에 투항한 박주 사람들 이외에 북계 諸州의 백성들은 그대로 위도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도에 입보한 주현민들은 무오정변 이후 반정부적인 기치를 내걸고서, 일부는 몽골에 투항하였고 일부는 그대로 위도에 머물면서 최씨무인정권 붕괴 이후 강도조정 of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료 F-4에서, 安北別將 康之俊이 1258년 5월 庚午日(21일) 강도에 귀순하여 攝郎將에 제수된 장면이 포착된다.⁸⁴⁾ 강지준이 귀순하게 된 것은 강도조정에서 홍희 대신 파견한 金之岱가 위도에 입보하고 있었던 북계민과 주진군을 적극적으로 설유하였기⁸⁵⁾ 때문이라 여겨진다. 안북별장 강지준은 박주민처럼 몽골에 투항하여 반역자로 낙인찍히는 것보다 강도조에 귀순하여 위도 입보민이 처한 그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흐트러진 북계의 해도입보방어체계를 추스르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위도 이외에 북계의 다른 전략해도들의 입보 상황, 대

하여 임명되었다.

84) 본문의 사료 F-4에서 安北別將 康之俊이 江都에 귀순해 왔다고 되어 있을 뿐 그가 휘하 병사들을 데리고 함께 귀순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안북별장 강지준은 葦島에서 배를 타고 강도에 도착하여 귀순하였을 것이므로 그가 휘하 병력과 더불어 강도조에 귀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85) 『高麗史』 권102, 列傳15, 金之岱傳, “(前略) 時蒙古兵犯北邊 知兵馬事洪熙嗜女色 不恤軍務 一方離心. 以之岱有才略 陞簽書樞密院事 代熙出鎮 撫以恩信 西北四十餘城 賴以安.”

몽전투 전과, 입보민 離叛 및 투몽사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G-1. 己未日에 北界兵馬使가 보고하기를, “몽골의 병선 7척이 葛島를 침공하여 30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高麗史』 권24, 高宗 41년 2월 己未日條)⁸⁶⁾
- G-2. 己巳日에 몽골군 60명이 艾島를 침공하였는데 別抄가 모두 잡아 목을 베었다.(『高麗史』 권24, 高宗 43년 10월 己巳日條)⁸⁷⁾
- G-3. 몽골군이 神威島를 함락시켰으며, 孟州 수령 胡壽가 살해되었다.(『高麗史』 권24, 高宗 44년 7월조)⁸⁸⁾
- G-4. 북계의 艾島와 葛島의 피난민들과 같이 섬으로 들어갔던 각驛의 사람들이 京別抄 7인을 죽이고 몽골에 투항하였다.(『高麗史』 권24, 高宗 46년 3월조)⁸⁹⁾
- G-5. 癸未日에 席島와 椴島 사람들이 모반하자 西北面兵馬使 李喬가 都領 韋得柔를 파견하여 그들을 공격하여 괴수 來同等을 참수하였다.(『高麗史』 권25, 元宗 1년 1월 癸未日條)⁹⁰⁾
- G-6. 원종 원년(1260)에 몽골병을 피해 安州의 蘆島에 들어갔다. 그 뒤에 모두 다섯 번을 옮겨 다녔다. 충렬왕 6년(1280)에 이르러 옛 땅을 회복하고 成州에 예속되었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德州條)⁹¹⁾

86) 『高麗史』 권24, 高宗 41년 2월 己未日條,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七艘侵葛島, 虜三十戶.”

87) 『高麗史』 권24, 高宗 43년 10월 己巳日條, “己巳 蒙兵六十人寇艾島, 別抄盡擒斬之.”

88) 『高麗史』 권24, 高宗 44년 7월조, “蒙兵陷神威島, 孟州守胡壽被害.”

89) 『高麗史』 권24, 高宗 46년 3월조, “北界艾·葛二島, 合入各驛人, 殺京別抄七人, 投蒙古.”

90) 『高麗史』 권25, 元宗 1년 1월 癸未日條, “癸未 席島·椴島人謀叛, 西北面兵馬使李喬, 遣都領韋得柔, 擊之, 斬其魁來同等.”

91)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德州條, “元宗元年, 避蒙兵,

앞의 사료 G群을 살펴보면, 대몽전쟁기 말엽 및 대몽강화체결(1259년) 이후부터 원종 10년까지 서해도·북계에서 葛島, 艾島, 神威島, 석도, 椴島, 蘆島 등의 전략해도가 散見된다. 이들 전략해도 중에서 서해도의 석도를 제외하면, 갈도 등 나머지 5개 섬은 북계에 소속되어 있는 전략해도이다. 북계 전략해도들 중에서 해도전투가 발발하였던 섬은 갈도·애도·신위도이다.

먼저 사료 G-1에서 고종 41년 2월 己未日(16일)에 몽골 병선 7척이 갈도를 침공하여 30戶를 포로로 잡아갔음을 알 수 있다. 갈도를 침공한 몽골군은 몽골 제4차 침입군 총사령관 也古(也窟)의 부관이었던 阿母侃 휘하의 병사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 야고는 충주산성전투에서 병을 얻어⁹²⁾ 몽골 수도로 귀환하고 있었으므로 사료 G-1의 갈도침공을 명령한 이는 阿母侃이었다고 생각한다. 갈도를 침공하였던 몽골군이 30호를 포로로 붙잡아감으로써 해도입보 방어책에 위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이 갈도를 함락시킨 것은 아니며 갈도에 입보해 있던 軍民의 강렬한 저항을 받고 물러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사료 G-2를 살펴보면, 고종 43년 10월 己巳日(12일)에 몽골군 60명이 애도를 침공하였으나 애도에 주둔한 별초가 모두 사로잡아 목을 베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애도를 침공한 몽골군 60명은 제5차 침입군 중 몽골 수군에 편제된 부대였는데, 이들이 타고 온 전선의 규모는 알 수 없다.⁹³⁾ 사료 G-2

入于安州之蘆島。後凡五遷。至忠烈王六年，復舊地，屬於成州。”

92) 『高麗史』 권103, 열전 金允侯傳에서 也古(也窟)이 忠州山城전투에서 病을 얻어서 전투를 중단하고 몽골로 北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池內宏은 몽골군 지휘부 내부 갈등 때문에 소환된 것이라고 하였다(池內宏,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0, 1924, 165쪽 및 190쪽 참조).

93) 사료 G-2에서, 北界의 艾島를 침공한 몽골군은 60명이었다. 몽골군이 10명씩 작

에서 나타나는 별초는 京別抄라고 여겨진다. 이는 사료 G-4에서 애도에 경별초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사료 G-3을 눈여겨보면, 고종 44년 당시 신위도가 몽골 수군에게 함락되고 맹주 수령 胡壽가 적군에게 살해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위도의 함락은 최씨무인정권이 입안하고 강행하였던 해도입보책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몽전쟁기 서해도 방면에서 치러진 해도전투는 전부 고려 측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나, 북계에서 발발한 해도전투는 승전과 패전이 모두 상존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북계 애도에서는 별초가 몽골 수군을 격멸시켰으나, 신위도에서는 대몽방어에 실패하여 섬이 함락되고 맹주 수령이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대몽전쟁기 말엽 ~ 원종대 초반 북계 전략해도에서는 대몽항전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입보민의 투몽사태 및 모반이 심화되었고 몽골군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한 주에서 추가적인 해도입보가 이루어졌다. 먼저 북계 해도입보민의 투몽 사례는 사료 G-4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사료 G-4를 살펴보면, 1259년(고종 46) 3월에 북계 애도·갈도에 들어온 피난민들과 각 역의 사람들이 경별초 7인을 죽이고 몽골에 투항한 사실이 포착된다. 애도·갈도는 경별초가 주둔하고 있었을 만큼 북계에서 중요시되었던 전략해도였는데, 애도·갈도에 입보하였던 각 처의 주현민과 驛人이 경별초를 살해하고 몽골에 항복한 것은 강도조정에 커다란 위기의식을 조장하였다. 애도·갈도 입보민의 투몽은 1년 전 위도에 입보한 박주민의 투몽사태처럼 해도입보책을 강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인정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⁹⁴⁾

은 戰船 1척에 승선했다고 하면 총 6척으로 침공한 셈이고, 20명씩 전선 1척에 승선했다고 가정하면 총 3척으로 침공했다고 생각된다. 몽골군은 전선 3~6척 정도의 규모로 애도를 침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사료 G-5를 보면, 1260년(원종 1) 1월 癸未日(15일)에 석도·가도 입보민이 모반하자 서북면병마사 李喬가 都領 韋得柔를 보내 반란민의 괴수 來同 등을 참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북계의 전략해도 중 하나였던 가도에서 모반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1260년 당시 북계병마사영(서북면병마사영)은 석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⁹⁵⁾ 서북면병마사 이교가 도령 위득유를 보내 진압한 대상은 가도의 반란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석도에 주재하고 있던 서북면병마사는 석도 안의 반란민을 자체적으로 제압하였을 것이고, 다소 떨어져 있는 북계의 가도에 도령 위득유를 급파하여 가도 반란민의 우두머리 내동 등을 참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사료 G-5에서는 석도·가도 입보민이 모반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몽골에 투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서북면병마사의 적절한 대응으로 석도·가도 입보민의 모반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사료 G-4에서 애도·갈도 입보민의 투몽사태, G-5에서 석도·가도 입보민의 모반사태와는 다르게, 사료 G-6을 보면 1260년(원종 1) 북계의 德州가 몽골군을 피해 安州 소속의 蘆島

94) 艾島·葛島 입보민의 投蒙은 1259년(고종 46) 3월의 일이었다. 이 당시 金俊政權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金俊은 朴希實·李延紹·朴松庇·林衍·金承俊·李公柱 등 衛社功臣과 연대하면서 重房 중심의 정치운영을 구사하였고, 1258년 戊午政變 이후 復政于王의 대의명분 하에 王權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金俊정권 초기에 金俊은 崔氏武人政權 때보다 무인집정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격하되어 있었다. 더욱이 당시 몽골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金俊 집권 초기에 金俊이 북계 戰略海島의 入保民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95) 『東文選』 권14, 七言律詩, 贈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 및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5년 5월조를 통해서, 1258년(고종 45) 5월 당시 金之岱는 北界兵馬使營이 소재한 席島에 머물러 있었음이 확증된다. 그렇다면 1260년(원종 1) 무렵에도 북계병마사영이 석도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에 입보한 사실이 발견된다. 덕주가 안북부(안주) 소속의 로도에 입보한 것은 1259년 대몽전쟁이 종식되고 대몽강화가 체결되었더라도 서경에 몽골군 장수 王萬戶가 1만 군사로 주둔하여⁹⁶⁾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왕만호는 『元史』에서 王榮祖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몽전쟁 초기부터 종군하여 고려를 끊임없이 공략한 거란족 출신 몽골 장군이었다.⁹⁷⁾ 왕영조 휘하의 서경 몽골군은 1259년 7월 靑松縣·安獄郡·豊州·海州에 함부로 뛰어들어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⁹⁸⁾ 뿐만 아니라 대몽강화에 따른 여·몽 사이에서의 和平 분위기 형성에도 불구하고 왕영조 휘하의 몽골군은 서해도 섬에서 육지로 나온 고려 병사들을 모두 포로로 잡았으므로, 서해도의 出排別監이 섬에 있는 고려 병사들을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중지시킬 것을 강도 조정에게 요청하는⁹⁹⁾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왕영조 휘하 서경 몽골군의 위협을 받아 1260년에 덕주가 안북부에 소속된 로도에 입보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덕주 수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서경 몽골군의 약탈과 군사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김준정권의 명령에 의한 해도입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96) 『高麗史』 권24, 高宗 46년 2월 庚子日條, “庚子 李凝還自西京曰 王萬戶云 汝國王不愛百姓耶. 何聽尹椿·松山之言 不出降乎. 降則秋毫不犯. 時 王萬戶率軍十領 修築西京古城 又造戰艦 開屯田 爲久留計.”

97) 『元史』 권149, 列傳36, 王珣傳 附 王榮祖傳 참조.

98) 『高麗史』 권25, 元宗 즉위년 7월 己巳日條, “己巳 西京蒙兵 闖入靑松·安獄·豊·海州 驅掠人物而去.”

99) 『高麗史』 권25, 元宗 즉위년 11월 甲寅日條, “甲寅 西海道出排別監馳報 今兵出陸者 皆爲蒙兵所虜 請停出陸.”

4. 맺음말

－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策 실행의 軍事的 特性 －

대몽전쟁기 해도입보는 1231년(고종 18) 9월 서해도 황주·봉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그해 10월경 안북부전투를 앞두고 북계 청천강에 인접한 諸州에서 집단적으로 시행되었다. 1231년에 서해도·북계의 해도입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유력한 대몽방어책으로서 인식되자 1232년 강화천도 이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해도입보가 추진되었으며, 해도입보책은 최우정권에 의해서 최우선 전략으로서 확정되었다. 서해도·북계에서 시행된 해도입보는 군사전략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楊廣道 이남 지역에서 추진된 해도입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몽전쟁기 서해도·북계에서 시행된 해도입보책의 군사전략적 특성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계의 경우 1231년 10월부터 청천강 연안에 인접해 있던 여러 州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전략해도에 입보하였다. 박주를 비롯하여 여러 주들이 위도에 입보하였고, 맹주는 신위도에 입보하였다. 박주·맹주 이외의 북계 諸州는 청천강 하구의 애도·갈도 및 대동강 하구의 가도 등에 입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선주·창주의 경우 1231년에 강화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자연도(지금의 영종도)에 입보하였는데, 이는 몽골군 침입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북계 고을을 최우정권이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북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도에 입보케 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몽골군에게 1231년 8월에 가장 먼저 함락당한 함신진은 몽골군 주력부대가 안북부전투를 앞두고 있을 무렵 압록강 하구의 신도에 입보하였다. 전반적으

로 1231년 북계 諸州에서 이루어진 해도입보는 안북부전투 이전에 최우정권의 통제 하에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북계의 경우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민이 1261년(원종 2)에서야 출륙했을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해도에서 머물렀다.¹⁰⁰⁾ 대몽전쟁이 심화될수록 북계 내륙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며 몽골 제5차 침입 이후에는 몽골군이 장기간 북계에 주둔하였으므로 북계 전략해도에 입보한 피난민들은 쉽사리 출륙하지 못하였다. 북계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민은 1259년 대몽강화가 체결되고 서경에 주둔한 1만의 몽골군이 1260년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야 1261년에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양광도 이남의 주현민이 대몽전쟁기에 전략해도에 입보했다 라도 몽골군이 철수하면 상황에 따라 곧바로 출륙할 수 있었던 사정과 상반되는 것이다. 북계 諸州의 주현민이 전략해도에 오랜 기간 입보하였다는 것은 고려무인정권이 해도입보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으며 북계민의 대몽항전 역량을 장기간 보존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서海道·북계에 소속된 전략해도는 대몽전쟁기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江都(江華京)를 북쪽으로부터 방어하는 전초 기지와도 같았다. 북계의 전략해도들은 압록강·청천강·대동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도의 전략해도들은 주로 대동강 하구 및 웅진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북계 전략해도들은 압록강·청천강·대동강 등 대하천을 연결하는 해상로를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북계 전략해도들은 서해도의 전략해도인 석도·초도

100) 博州 등 北界 州縣民의 경우 1231년(고종 18)에 국가에서 지정한 海島에 入保 하여 1261년(원종 2)에서야 육지로 나왔다. 물론 북계 주현민은 몽골 침입군이 철수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육지로 나와 평소의 삶을 영위하려 애썼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체적으로 楊廣道를 포함한 五道 주현민의 피난 생활에 비해 훨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간다.

를 거쳐 웅진반도의 창린도까지 연결되었다. 특히 서해도 전략해도였던 석도·창린도에서는 몽골 수군과의 해상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몽골군이 수로를 통해 강화도를 침공하는 것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가 있었다.

넷째, 북계의 중요한 전략해도에는 북계 소속의 별초군뿐만 아니라 중앙의 경별초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방어력을 배가시켰다. 경별초가 배치된 것으로 관련사료상에서 확인되는 전략해도는 애도·갈도·가도 등이 있다. 경별초는 북계 소속의 별초군과 합동작전을 펼쳤으며, 북계 전략해도를 침공한 몽골 수군을 격퇴시켰다. 한편, 1256년(고종 43) 4월 서북면병마사의 명령에 의해 의주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 1천을 격파한 주체는 별초 3백이었는데¹⁰¹⁾, 이 별초군은 창린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계 별초 혹은 경별초였을 개연성이 높다. 1256년 몽골군 원수 車羅大의 대대적인 해도침공이 개시되었을 때 전라도·충청도 방면의 전략해도들을 지키기 위해 강도의 舟師(수군) 3백 명이 급파된¹⁰²⁾ 것과 달리, 북계의 주요 전략해도들에는 이미 경별초가 배치되어 있었다는 특색을 지닌다.

다섯째, 대몽전쟁기 말엽에 북계병마사영(서북면병마사영)이 서해도·북계 전략해도로 옮겨져 해도입보 및 대몽전투를 총괄 지휘하였다. 1256년 몽골 제5차 침입군이 대대적인 해도침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¹⁰³⁾ 북계병마사영이 서해도의 창린도로 옮겨져 몽골 수군의 해도침공을 방어하였다. 이후 북계병마사영은 1258년경 서해도의 석도로 옮겨졌으며, 대몽강화가

101) 『高麗史』 권24, 高宗 43년 여름 4월 戊寅日條, “戊寅 西北面兵馬使馳報 遣別抄三百 擊蒙兵一千于義州.”

102) 『高麗史』 권24, 高宗 43년 봄 정월 丁巳日條, “丁巳 王聞 蒙古兵 謀攻諸島 遣將軍 李廣 宋君斐 領舟師三百 南下 禦之.”

103) 『高麗史』 권24, 高宗 43년 봄 정월 丁巳日條 참조.

체결된 元宗 때 북계의 가도로 옮겨졌다.

고려무인정권이 대몽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인들 중 하나는 북계·서해도에 소재한 전략해도가 대몽전쟁이 종식될 때까지도 계속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계·서해도 전략해도들은 고려 수도 강도를 북방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몽골군 후방지대를 기습하는 등 고유의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책의 전략전술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원고투고일 : 2020. 10. 7, 심사수정일 : 2020. 11. 13,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서해도, 북계, 해도입보, 해도입보책, 전략해도, 최우정권, 석도, 창린도, 애도, 갈도, 경별초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輿地圖書』, 『大東地志』, 『元史』

2. 연구서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尹龍燮,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_____,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 일지사, 2000.

<http://uci.or.kr/G901:A-0005997481>

_____,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http://uci.or.kr/G701:B-00093245162>

_____, 『삼별초: 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혜안, 2014.

<http://uci.or.kr/G901:A-0006521906>

姜在光, 『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경인문화사, 2011.

<http://uci.or.kr/G701:B-00099027212>

한국해양재단 편, 『한국해양사』 III, 2013.

3. 연구 논문

尹龍燮, 「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

『歷史教育』 32, 1982.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

yn_003_0695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66

(2008.04); 27-62,

<https://doi.org/10.29212/mh.2008..66.27>

- 姜在光, 『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 『지역과 역사』 30(2012.04); 35-76,
<http://uci.or.kr/G704-001416.2012..30.002>
- _____, 「1255~1256년 槽島·牙州海島 대상지 비정과 海戰의 影響」, 『軍史』 93(2014.12); 37-66,
<https://doi.org/10.29212/mh.2014..93.37>
- _____, 『對蒙戰爭期 고려 水軍의 활동 양상과 戰爭史的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57(2019.05); 41-79.
<http://uci.or.kr/I410-ECN-0101-2019-911-000734359>
-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 109(2010.06); 115-148,
<http://uci.or.kr/G704-000336.2010..109.011>
- _____,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軍史』 89(2013.12); 33-74,
<https://doi.org/10.29212/mh.2013..89.33>
- 姜鳳龍, 「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 그 동아시아적 의의-」, 『東洋史學研究』 115(2011.06); 55-99,
<http://uci.or.kr/G704-000250.2011..115.011>

(Abstract)

The Characters for the Implements of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in Seohaedo(西海道)·Bukkye(北界) of Goryeo dynasty in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Kang, Jae-gwang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during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Seohaedo(西海道) and Bukkye(北界) of Goryeo dynasty in 1231. The strategic experience of Haedoibbo(海島入保) that had been executed in these provinces had an considerable effect on the governments' escape led by King into the Kanghwa island(江華遷都) in 1232.

Island Protection Tactics that was propelled in Seohaedo and Bukkye in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have several military characters distinguished with southern provinces of Yanggwangdo(楊廣道).

The first, Haedoibbo in Seohaedo and Bukkye had come true throughout intensive military control of Choi Woo's political power, from the start.

The second, Juhyunmin(州縣民) who had entered to strategic islands of Bukkye, could come back to the homeland in 1261. They defended strategic islands from Mongol invasion, staying to designated islands for a long time.

The third, Byeolchogun(別抄軍) that had stationed to strategic islands of Seohaedo, won to all naval battles against Mongol navy. As a result, Juhyunmin and defensive forces of strategic islands, prevented from Mongol navy's coastal infiltration toward Kanghwa island.

The fourth, Gyungbyeolcho(京別抄) dispatched to main strategic islands of Bukkye. Forward stationing of this unit strengthened defensive power of strategic islands of Bukkye. The fifth, Bukkyebyungmasayeong(北界兵馬使

營) had been moved to strategic islands of Seohaedo and Bukkye in the end of the War against Mongol.

Keywords : Seohaedo(西海道), Bukkye(北界),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Juhyunmin(州縣民),
Byeolchogun(別抄軍), Gyungbyeolcho(京別抄)

